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서 본 북한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정은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I. 서론
- II. 조사 분석결과
- III.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구조
- I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요약〉

해외 거주 탈북자는 본국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이관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소득 대부분을 송금하고 있었다. 이는 구조적으로 이슬람의 ‘하왈라나 인도의’ 훈다 등 비공식 증개업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하는 ‘비공식 자금이체시스템’과 유사했다. 다만 중국을 경유하며 수수료가 고가지만 참여자는 계속 증가추세다. 그 이유는 북·중 접경지대의 비공식 송금시스템이 중심이 되어 북한의 송금 시스템은 내륙과 제 3국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과 정보·통신·교통·유통·결제망 등 사회간접자본을 공유·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이관시스템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 네트워크다. 또한 중국과 경제적, 문화적, 도덕적 기반 하에 만들어진 비공식 금융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이관시스템을 통해 유입된 송금은 북한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외화공급량을 증대시켰다. 이는

* 이 글은 『동북아경제연구』 제 29권 4호 “북중 간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탈북자 송금을 중심으로”에 게재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한국은행에서 추계한 북한 GDP의 4분의 1 규모다. 둘째, 유효수요의 창출이다. 즉 북한의 가족은 외화로 송금을 받았는데 외화는 북한에서 가치가 높다. 셋째, 송금은 유통을 원활하게 도와줘 거래를 증대시킨다. 무엇보다 수취인은 서민층으로 이들은 송금을 받는 즉시 장마당에서 소비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송금은 김정은 시대 동맥과도 같아 민생과 지역경제, 나아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 서론

1. 문제의식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경제성장률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 문제는 당국이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는 의견을 수렴한다.²⁾ 무엇보다 주민의 경제적 삶이 향상되었다는 질적 지표가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³⁾ 뿐만 아니라 GDP 추계법 중 상품의 수량과 단가가 포함된다고

1) 양운철·장형수는 2011-2015년까지 북한의 석탄 총생산량 추정치가 상당히 과소평가되었으며 이 부문을 포함시키면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은 대폭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양운철·장형수,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성장률 추정치 평가”, 『세종정책브리핑』 No. 2017-21(2017).

2) 평양을 방문한 일부 서양 학자들은 최근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의 발표보다 더 높은 8-9%라고 예측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과의 비즈니스: 현대화와 신 소비문화”, 국제회의 자료집(2017) 참조

3) 중국에서는 저녁에 사람들이 밖에 나와 녹음기를 틀어놓고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 북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90년대 암흑기가 지나고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삶을 향유하는 계층이 증가했음을 뒷받침한다.

할 때, 1990년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상품 공급능력의 향상⁴⁾ 및 상품 단가의 상승에 관한 근거가 적지 않다. 여기서 상품가격은 단순히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물가는 2013년 이후 상당히 안정적이다.⁵⁾ 이는 고부가가치상품을 의미한다. 물론 쌀, 밀가루, 야채 등 대량소비품은 여전히 시장에서 내화로 거래되지만 휴대전화, 태양광판, 주택, 정제유 등 100% 외화로만 거래되는 고부가가치상품도 등장했다.⁶⁾ 이러한 변화는 북한 GDP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는 자료로써는 한계가 많지만, GDP 그 자체가 증가했다는 근거로는 충분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급 능력의 향상은 곧 구매력(PPP)향상과도 의미가 상통한다.⁷⁾ 유효수요의 증가로 공급부문이 자극을 받아 GDP가 증대한 측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金正은 시대 家計(家計)의 구매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家計의 소득원천을 살펴보면 크게 국내와 국외로 분류된다. 즉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과 ‘해외송금’이다. 그 중에도 특히 해외에서 노동 가치가 훨씬 크게 책정되기 때문에 해외급여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다만 이는 송금규모가 적지 않다는 전제에서 성립된다. 그런데 북한의 해외 송금지는 무역대표나

4) 통일연구원의 북한시장 조사연구팀에 의하면, 구글어스 및 탈북자 면담·설문조사 등에 입각하여 북한 전역의 공식시장 분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식시장은 2016년 12월 현재 404개며 관련종사자가 110만 명에 이른다. 홍민·차문석·정은이·김혁,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5) 최지영·정승호, “북한시장의 물가와 인플레이션,” 한국수출입은행 편저 『북한의 금융』,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16), pp.169-174.

6) 양문수는 화폐기능의 측면에서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정도를 분석했는데 통상적으로 통화대체현상은 부동산 등 고가품 거래에서 먼저 일어나며 점차 소규모 거래로 확산된다고 주장했다. 양문수,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한국수출입은행 편저 『북한의 금융』,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16), pp.122-123.

7) 북한 당국은 최근 기업들에게 독립채산제의 강화와 함께 ‘지불능력 있는 소비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친척방문, 해외과건노동자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중국을 입국한 북한의 여행객수는 2009년 10만에서 2015년 약 19만 명으로 5-6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 중 서비스업 종사자가 50%를 차지한다.⁸⁾ 그러나 무엇보다 불법으로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중 접경지대 활동가들은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규모를 최소 10만에서 최대 30만까지도 예상한다. 물론, 이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만큼 탈북자가 많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들은 중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중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때로는 한번에 2개, 3개 직종에 종사하여 결코 현지인과 비교해 소득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약 3만 명의 탈북자가 정착하고 있으며 대부분 송금을 한다. 따라서 해외 탈북자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북한 경제성장의 수수께끼를 푸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는 첫째, 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송금 행위자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탈북자를 통해 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송금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송금의 의의와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해 고찰한다.

2. 조사 설계

가. 조사대상 및 지역

① 탈북자에 대한 송금을 둘러싼 본격적인 필자의 참여관찰 및 조사

8) 中国旅游统计公报(<http://www.cnta.gov.cn> 검색일: 2016.10.30.)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7년 12월 현재까지다. ② 조사지역은 한국 및 북·중 접경지대 단동 및 연변이다. 이곳을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거주를 포함한 북한인의 왕래가 가장 많고 송금의 주요 원천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③ 조사 대상자로 한국에서는 주로 탈북자이면서 러시아 또는 중국 등 해외 체류경험자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북·중 접경지대에서는 합법·비합법적으로 친척방문으로 중국에 나온 북한 화교 또는 북한에 친척을 둔 중국 조선족, NGO·NPO 등을 대상으로 현지 탈북자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조사했다.

나. 조사방법 : 심층인터뷰기법에 의한 단계별 설계조사

인터뷰대상자는 총 30명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해 진행했다. 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능한 송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탈북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②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뷰대상자 중 러시아·중국·영국·한국 등 각 국가별로 송금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국가별 북한으로의 송금행태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각국의 송금행태를 비교하였다. ③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사례별로 송금의 공통된 유형에 대해 공통된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 항목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④ 유형화된 공통된 질문지 안에 집계 가능한 부문에 대해 기초 통계를 작성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다.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① 조사대상자가 북한에 보내는 송금규모다. 여기에는 1년에 보내는 횟수 및 금액이 포함된다.

② 송금방법이다. 주로 송금이 전달되는 지역, 브로커와의 연계 방법 및 브로커의 행태, 은행 이용 여부 등이 내용에 포함된다. 그 외에도 수수료 및 송금 받는데 걸리는 시간, 확인 방법 등도 내용에 포함한다. ③ 송금의 원천이다. 이 질문에는 조사대상자가 외국에서 송금의 원천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업종에 어느 정도의 임금으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④북한에서 송금을 직접 받는 대상자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대상자의 거주 지역, 송금액수, 송금 수취인의 소비처에 관한 항목 및 과정을 질문한다. ⑤그 외에 해외연고자의 여부, 해외에서의 연락방법 등이 포함된다.

II. 조사결과 및 분석

1. 탈북자 규모 추정

해외송금의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송금이 북한경제에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에 달해야 한다.

현지조사결과, 해외에 나온 북한 주민 대부분은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외화를 벌기 위해 해외에 나왔으며 그 최종 목적은 북한의 가족·친지에게 송금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꿔 말하면 송금의 규모나 방법과는 별개로 해외 거주 북한 주민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국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송금을 하거나 한 적이 있었다. 문제는 해외 거주 북한주민의 규모를 추정하는 일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탈북자의

규모를 추정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NGO·NPO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거주 탈북자는 최소 10만에서 최대 30만까지도 예측한다. 그 근거로는 탈북자의 수가 누적되고 있으며 한 마을에 적지 않은 탈북자가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살고 있음을 든다.⁹⁾ 그러나 이는 탈북자가 해외에 많이 체류하고 있다는 근거로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수치나 추정치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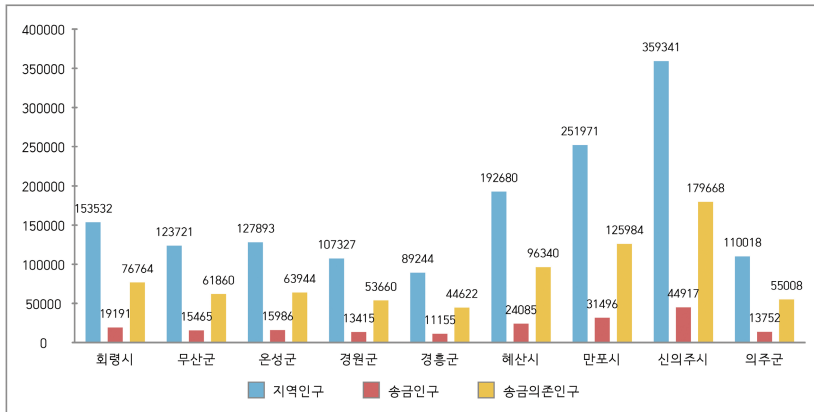
〈표 1〉 주요 국경지역 탈북자 송금의존율

도이름	도시명	지역인구	비중(%)	송금인구	송금의존인구
함경북도	회령시	153,532	50	19,191	76,764
	무산군	123,721	50	15,465	61,860
	온성군	127,893	50	15,986	63,944
	경원군	107,327	50	13,415	53,660
	경흥군	89,244	50	11,155	44,622
양 강 도	혜산시	192,680	50	24,085	96,340
자 강 도	만포시	251,971	50	31,496	125,984
평안북도	신의주시	359,341	50	44,917	179,668
	의주군	110,018	50	13,752	55,008
합 계	9개 지역	1,515,727	50	189,462	757,848

자료: 통계청 자료에 의거하여 필자 재구성

9) 이에 관해서는 류경원, “현장취재: 연고아동, 그 삶의 현장과 과제”, 『임진강』 No.5호(2009) ; 이정순, “접순에 움트는 새싹”, 『임진강』 No.5호(2009) ; 이정순, “실화: 중국마을을 부녀위원으로 선거 된 조선녀성”, 『임진강』 No.5호(2009).

〈그림 1〉 북한의 주요 국경지역별 송금인구(탈북자) 및 송금의존인구



자료: 통계청 자료에 의거하여 필자 재구성

각주: 송금인구는 지역인구*1/2*1/4, 송금의존인구는 지역인구*1/2

따라서 본 연구는 도강(渡江)을 포함한 해외 거주 탈북자가 대부분 북·중 국경지역 출신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송금 수취인의 관점에서 그 규모를 추정하고자 했다. 즉 인민반의 가계 소비행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국경지역 각 인민반의 40-50%가 해외송금에 의존하거나 또는 이중 가족 구성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탈북을 했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이 중단되면서 노동자구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대거 발생했으며,¹⁰⁾ 마을 여성 전체가 중국으로 도강하여 ‘홀애비촌’이라 불리는 곳도 적지 않았다.¹¹⁾ 이들이 북한에 돌아오지

10) 북한은 원래 주택이 절대 부족한 국가다. 그러나 90년대 배급제 붕괴와 함께 도시노동자가 식량을 찾아 전국 유랑을 떠나면서 빈집들이 대거 생겨났다. 당시 파배기 빵 몇 개에 교환되었다. 이러한 집들이 싸게 2000년대 상품으로 등장하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정은이,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2015), p.318.

11) 정은이, “북한에서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제2호(2013), p.263

않고 해외에 장기 거주할 경우 그 수치는 누적된다. 또한 탈북 원인도 다양해졌다. 경제적 원인에서 빈부격차 및 정보의 유입으로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등 사례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해외송금 수취인 가계는 의·식·주에서 소비행태가 일반주민과 확연히 달랐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송금 받는 가계는 북한에서 ‘한라산줄기’라고 불릴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비가 풍요로웠다. 이는 탈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며 당국도 이를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중 국경지역을 함경북도·자강도·양강도·평안북도 네 곳으로 한정할 경우, <표1> 및 <그림1>과 같으며 탈북자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접경지역의 총인구는 1,515,727명이다. 이때 이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에서 탈북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가족구성원 4인 중 최소 1인이 탈북을 했다고 가정하면 북한에 송금을 보내는 탈북자의 규모는 189,462명으로 추정된다.

2. 탈북자의 송금 규모 추정

그렇다면 탈북자의 송금원천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조사결과,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는 대부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식당 또는 보모(保姆: 아이 및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등 중국 현지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탈북자는 현지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만큼 급여가 현지 일반 노동자와 비교해 결코 적지 않았다. 도시에서 일하는 탈북자 급여는 시기별로 다양하지만, 공통된 점은 현지 노동자와 동일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급여뿐 아니라 이들은 직장 동료나 손님의 도움으로 북한에 보낼 중

옷을 비롯해 적지 않은 물자를 지원받고 있었다. 게다가 숙식을 직장
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지 생활비가 절약되었다. 1일
노동시간이 현지인보다 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때로는 성실함이 인정
되어 현지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특히 탈북자는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와 달리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평균 1달 급여가 2천 위안이라고 할 때 최대 6천 위안
까지도 벌고 있었다.

그 결과, 1달 소득이 현지인보다 높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체로
이들은 급여의 70%이상 송금하고 있었다. 한편, 농촌 거주 탈북 여성
들은 대체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 또한
그 지역에서 농사일을 하는 등 노동을 하고 있어 일정 수익이 있었다.
특히 이들은 탈북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정착한지 약 3-
5년이 지나면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을 시작했다. 여기서 3-5년은 탈북
여성이 한족(汉族)의 가족구성원에게 인정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그 중 일부는 중국체류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시로 나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벌어들이는 급여를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현지 노동자의 1달 임금과 동등한 수준인 300(2,500위안)달러로 하고
이 중 최소 50%를 북한 가족에게 송금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1달
송금액은 150달러다.

주요 국경지역 출신의 탈북자 189,462명 중 남한의 탈북자 3만
명을 빼면 159,462명이다. 따라서 주요 국경지역출신의 탈북자가
북한에 보내는 1년 총 송금액은 $159,462\text{명} \times 150\text{달러} \times 12\text{달} = 287,031,600$

달러이다.

한편, 한국에는 3만 명 이상의 탈북자가 정착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최소 1년 한 차례 이상 송금을 하고 있었다. 탈북자의 송금 액 및 회수는 불규칙하지만 접경지역 거주 브로커의 다수 증언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평균 1인당 3달에 한 번씩 1,000달러를 북한가족에게 송금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중 3분이 2가 1년에 4000달러만 보낸다고 가정하면 총 8천 만 달러를 송금하는 셈이다. 한국에서 탈북자가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1회 송금액은 많지만, 중국에 워낙 많은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어 오히려 중국에서 보내는 송금액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경지역의 탈북자가 보내는 송금액만 합해도 최소 1년에 367,031,600달러의 외화가 북한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3. 탈북자의 송금 루트

조사결과, 탈북자가 북한 가족에게 송금하는 방법은 중개인을 통하며 이는 크게 5개 개체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친척(조선족)이다. 이들이 장사 등을 목적으로 북한에 가거나 또는 북한까지 갔지만 입국하지 않을 경우 북한세관 면회장에서 만나 직접 친척에게 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도강(渡江)하는 비용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중국 친척이 돕는 입장이어서 탈북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연고자(緣故者)에 한정되며 북한장사를 중단하는 등 중국 친척에게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속되기 어려웠다.

둘째, 북한 세관원이다. 세관원은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고 당국에서 요구하는 ‘숙제(상납)’가 많아 직위를 이용해 국경 출입자의 돈이나 물건을 심부름하면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송금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세관원이 요구하는 것은 주로 물건이며 품목은 생필품에서 공장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때로는 간부사업을 위한 고가의 물건도 요구했다. 한편,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관원의 직위는 하나의 신용이 되어 송금업무를 맡길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일찍이 중국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중국과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워 송금업무를 대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세관원과 연계할 수 있는 인맥을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북한을 왕래하는 무역대표나 중국 트럭운전수다. 이들을 활용할 경우 송금수수료는 없거나 수고비 명목으로 운전수에 인민폐 100~200위안 정도 소액에 불과했다. 그러나 주로 무역종사자거나 이들과 인맥을 가진 어느 정도 직위를 가진 사람에 한정되었다. 때로는 평양 사람은 단둥↔신의주 간 국제열차 승무원이나 기관사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이 경우 수수료는 10% 정도다.

넷째, 동향인이다. 동향인은 탈북자가 중국에 거주할 때 북한인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소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우연히 만나는 경우다. 동향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부탁할 경우 수수료는 저렴하지만 카메라 등 좋은 물건이라면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적지 않았다. 다섯째, 브로커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중국과 북한 양측에 존재하여 북한과 중국의 왕래가 가능한 개체들이 한다. 따라서 초창기 송금 대행 업무는 북한화교가 참여를 많이 했다. 수수료는 20-30% 범위로 매우 높지만 탈북자 대부분브로커를 통해 송금하는 것이 관행화가 되었다.

무엇보다 송금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체로 24시간 안으로 매우 빠르며 이관선을 찾기가 가장 쉬웠기 때문이다. 즉 그 만큼 참여자가 증가했다. 브로커를 소개받는 방법은 다양했다. 남한의 경우, 같은 탈북자나 북한에 있는 가족, 중국에서의 인맥 등 다양했다. 최근에는 북한 국경지대 숙박업소가 송금의 업무도 대행해 주었다.

Ⅲ.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구조¹²⁾

1. 북한 내륙 자금 이체 시스템

가. ‘물주(物主)’와 이관시스템

북한의 사(私)금융은 최근 지역과 지역 간에도 송금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¹³⁾ 이는 전국에 분포된 시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균등하게 발전한데 기인한다. 특히 개인 물류운송업자의 등장은 시장 네트워크형성에 큰 동력이 되었다.¹⁴⁾ 예를 들어, 청진상인이 평성의 도매상인에게 담배 수십 박스를 주문하면, 트럭운전수가 청진까지 배송해준다. 따라서 종전에는 상인이 직접 현지에 가서 상품을 날라 갔다면

12) Ⅲ 장은 필자의 중국 현지조사 및 인터뷰조사에 의해 작성된 설문지에서 공통된 규칙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13) 북한의 사금융은 1980년대 환전, 1990년대 고리대, 2000년대 대부/투자기능으로 확장되면서, 2010년에는 송금시스템이 갖추어지며 수요와 공급구조가 갖추어진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박영자, “북한의 사금융시장,” 한국수출입은행 편저 『북한의 금융』, (서울 : 도서출판 오름, 2016), p.184.

14) 정은이, “북한의 물류와 시장: 운송업자·주요소 등장…북한에도 ‘택배’가 가능해졌다,” 『통일시대』, 민주평통, 212호(2016) 참조.

지금은 앉은자리에서 전화주문만으로 타 지역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5톤급 ‘승리58’ 차량으로 수송하던 물자를 5톤에서 30톤, 40톤에 달하는 각종 대형 운전기재로 수송하다보니 장거리 대량 물류운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운전재와 관련하여 북한의 대중 수입은 몇 년 사이 대폭 증가했다.

이때 대량의 물류운송 증대는 필연적으로 지역 간 유통화폐의 증가를 수반한다. 따라서 초기에는 트럭 운전수나 열차기관사 및 승무원 등이 매개가 되어 화폐를 운반했다면, 지금은 화폐의 이동이 없이도 지역 간 결제가 가능한 이른바 ‘이관시스템’이 생성되었다. 예를 들어, 평성은 전국도매시장으로, 특히 개인이 가내기계공업방식으로 만든 옷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¹⁵⁾ 이렇게 평성에서 대량으로 복장생산이 가능한 이유는 나선을 통해 중국산 천을 대량으로 받아볼 수 있는 유통·결제 시스템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평성상인과 청진상인은 각각 천과 옷을 받았지만 상호 돈이 직접 오가지 않고도 쌍방의 채권·채무관계는 깨끗이 상쇄할 수 있다. 물주와 물주 간 대량의 물자가 오가고 거래가 장기화되다보니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각 거래마다 대금을 수수(收受)할 필요 없이 거래대금을 장부에 쌓아두고 일정기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총액에 대해서만 상계(相計)하고 그 잔액은 나중에 현금으로 받는 일종의 청산결제방식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역 간 장사네트워크를 구축한 물주가 자연스럽게 일정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대금결제도 대행해주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림2>와 같이 청진상인

15) 이는 중국에서 수입한 ‘기성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공옷’이라 불린다.

〈그림 2〉 북한의 이관 시스템



자료: 인터뷰조사에 의해 필자 작성

‘Ch1’이 평성상인 ‘Py1’에게 담배를 구입해 대금을 결제해야 하지만 평성에 갈 필요가 없다. 청진의 물주 ‘Ch2’를 찾아가면 된다. ‘Ch2’는 전국 각지 상인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장사를 크게 하여 청산해야할 대금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Ch2’는 평성상인과 거래선이 많다. 따라서 ‘Ch1’은 ‘Py1’에게 지불할 대금을 ‘Ch2’에게 지불하고, ‘Ch2’는 평성에 거주하는 자신의 장사파트너 ‘Py2’에 전화해 자신에게 지불할 대금을 평성의 Py1에게 지불하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Py1’에게는 ‘Ch2’ 집을 찾아가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Ch1에게 받을 돈을 Py2에게 받으라고 한다.

물론 이관수수료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전국이 동일하지 않다. 지역과 지역을 연계해 줄 물주가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평양→함흥, 평양→신의주는 상품의 유통량이 많아 이관선을

찾기 쉬운 반면 혜산↔만포는 사리원이라는 요충지를 거쳐 이관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찾기 어렵다. 물론 적용환율도 이관 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런데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조사결과, 이관시스템의 수수료는 결코 비싸지 않았다. 오히려 비용대비 효과가 높았다. 다음 사례와 같이 신속하고 편리할 뿐 아니라 당국의 검열 등에서 안전하다. 예를 들어, 탈북자 A씨는 사리원시장에서 선불을 주고 토끼가죽 100장을 구입해 혜산까지 온다. 혜산은 중국에 밀수로 넘기기 직전 가격이 형성되어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가죽을 판 대금을 사리원에 갈 때 가져가지 않는다. 도중에 몸수색을 당하면 몰수당하거나 도난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A씨는 혜산에서 장사를 잘 한다고 소문난 물주 B씨 집을 찾아간다. B씨는 중국에서 밀수로 전기밥솥, TV, DVD 등을 들여와 전국 각지 도매상에 판매하고 있어 받아야할 대금이 각 지역에 쌓여있다. 따라서 A씨는 B씨를 통해 돈 이관을 의뢰하고 사리원에 가서 받으면 된다.

이러한 이관시스템은 2000년대 후반에 신속성과 편리성, 정확성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데 이는 북한에서 휴대전화의 보급시기와도 맞물린다.

나. ‘왕도매상’과 장부이관

상기 이관시스템은 결제금액이 일반적으로 5,000달러를 초과하면 작동하기 어렵다. 금액이 큰 만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규모가 커서 사람이 돈을 직접 운반할 뿐 작동원리는 상기 이관시스템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A씨·B씨·C씨·D씨·E씨는 사리원

에서 권력을 등에 업고 큰 장사를 하는 물주다. 이들은 각각의 기관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했지만 담배유통이라는 동종업종이어서 5인이 어느 공장지배인과 협상을 통해 공장건물 한 채를 공동으로 임차한다. 특히 북한에서 담배는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담배를 취급하는 물주가 최고 물주로 손꼽힌다. 이들이 공장건물을 임차는 일은 어렵지 않다. 소속된 회사가 서로 다른 권력기관인 만큼 이는 오히려 권력의 통합 및 확대효과를 얻는다. 5인은 임차한 건물에 각자 지분에 따라 각자의 물류창고를 꾸린다. 이들이 물류창고를 꾸리는 이유는 시중가보다 저렴 하면서 안정적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받을 거래처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는 평양의 왕도매상 E씨가 정기적인 담배 공급처다. A씨는 일반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20톤 컨테이너차량으로 담배 한 차씩 공급받으면 다시 인부를 고용하여 사리원에서 판매할 담배만 남기고 작은 차량에 나누어 실어 사리원, 남포 등 각지로 보낸다. 한편, E씨가 전국 각지로 담배를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평양의 담배 공장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이다. 도매가로 제공받지만 금액이 큰 만큼 반드시 달러로 결제한다. 담배공장도 국영기업이지만 설비와 자재 대부분을 자체로 수입해야 하므로 외화를 늘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담배 공장은 외부 돈주와 거래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물론 누구나 E씨와 같이 공장과 직접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E씨는 한꺼번에 10만 달러 이상 자금동원이 가능한 ‘돈주(錢主)’다. 그러나 E씨가 돈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중앙당에 재직한 남편의 힘이 컸다.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고 평양 담배공장과 같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업초기단계에 투자자금의 유치도 용이했다. 평성의 담배유통판매업자 A씨도 E씨에게 초기에

5천 달러를 투자했던 이유도 E씨 남편의 권력이 하나의 신뢰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나 E씨와 함께 장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씨와 E씨의 관계는 가족이나 친지 등 일정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장사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신용이 되어 장사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때 A씨와 B씨 간 쌍방의 거래액은 물건이 배달될 때마다 장부상에 차곡차곡 쌓이며 실질적인 돈의 이동은 일정판매가 이루어진 후 잔금만 결제했다. 그러나 금액이 커서 매번 담배를 싣고 사리원으로 오는 운전 기사에게 돈을 보냈다. 이를 북한에서는 ‘장부이관’ 또는 ‘문서이관’이라 불린다.

2. 북·중 접경지역과 이관시스템

가. ‘왕(王)도매상’과 이관시스템의 생성

상기 이관시스템은 북한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원을 살펴보면 북·중 간 비공식 민간무역결제시스템으로 거슬러 간다. 즉 원래 북·중 민간무역은 보따리무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0년대 초 만해도 무역에 대한 규제가 강하여 민간 무역은 주로 양국 친척방문이 가능한 중국조선족, 북한화교, 북한의 중국연고자 등 소수 해외연고자(緣故者)에 의해 이루어졌다.¹⁶⁾ 그러나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당국이 무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많은 무역회사가 설립되었다.¹⁷⁾ 이에 따라 일반인도 자금만 있으면

16) 정은이·박종철, “중국의 대북한 무역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2014), pp.305~310.

17) 양문수,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한국개발연구원(2008), pp.5~9.

회사의 와꾸(ワーク: 무역허가권)를 빌려 중국과 교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민간인 중에도 중국과 대량으로 상품을 교역하는 ‘왕(王)도매상’이 생겨났다. 특히 왕도매상은 중국에 교역 파트너를 두고 중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상 주문만으로 앉은 자리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이때 물품대금은 주로 중국과 북한을 왕래하는 트럭운전수나 평양→북경 간 국제열차의 기관사나 승무원이 대신 전달해주었으나 거래가 일정기간 지속하다보니 결제대금이 거래 당사자 양측에 쌓여 장부상에서 물품대금을 상쇄하고 일정기간마다 차액만 청산하는 장부에 의한 결제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장부에 의한 청산결제방식은 상품만 이동하고 돈은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자 그 편리성과 신속성에 의해 확산되었다. 무엇보다 북·중 간 양측의 왕도매상은 쌍방이 결제해야할 대금이 쌓이자 다른 무역상인의 결제도 대신해주는 은행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북한상인은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대로 외화로 환전해 놓고 외화가 일정정도 모이지면 다시 중국에 상품을 주문하는데, 이때 신상품을 주문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잘 팔리는 상품은 다른 사람이 금방 모방해 들어오기 때문에 늘 새로운 상품을 고안해 주문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상인은 신상품을 주문하기 전까지 잠시 융통할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이때 여유자금을 투자할 좋은 투자처는 왕도매상이다. 왕도매상은 중국에 판로나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어 자금만 유통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즉 자금회전율이 이윤규모를 결정한다. 따라서 왕도매상은 단기간 돈을 빌리면서도 상환할 때는 채권자에 유리한 우대환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왕도매상이 인민폐 1원 당 내화 15원에 차용했다면 상환할 때는 17원으로 계산한다. 기간도 1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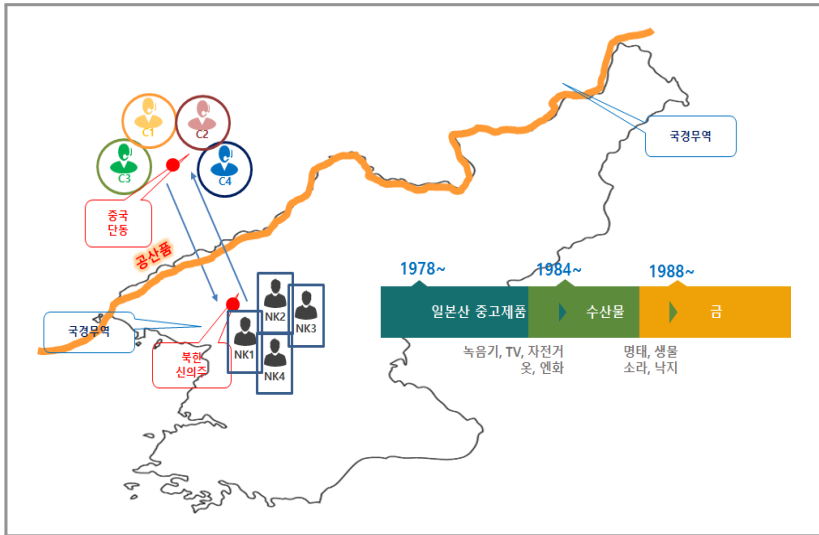
전후로 매우 짧아 매우 높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왕도매상에게 투자할 경우 또 다른 장점은 상환방법이다. 돈을 빌려준 중소기업이 중국과 거래가 있으며 마침 물품대금을 상환해야할 시기가 임박했다면 왕도매상은 자신의 결제망을 활용해 대신 결제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왕도매상에게 중국파트너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왕도매상은 중국에 있는 본인의 무역파트너에게 전화해 결제대금을 중소기업이 알려준 중국 ○○무역업자에 지불하라고 하면 양자 간 채무·채권관계는 종료된다.

그러므로 이관시스템은 편리성과 신속성, 안전성에 의해 참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람이 일정 현금을 소지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일은 통관 등 제약을 받아 거래장벽이 되어 점차 북중 간 이관시스템이 무역결제도 대신하게 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북·중 간 무역거래의 50% 이상이 북중 간 형성된 이관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데 그 이유는 북·중 간 무역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중국에서의 휴대전화 보급은 북중 간 이관시스템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 금 장사의 등장과 이관시스템의 확대

한편, 조사결과, 거래 초기 북한 상인이 중국에 판 상품은 소소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의 여파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자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그림3). 이로 인해 북한에서도 무역회사를 비롯한 외화벌이회사(유령회사 포함), 심지어 개인채굴업자까지도 금광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금

〈그림 3〉 북·중 민간 무역 간 거래 상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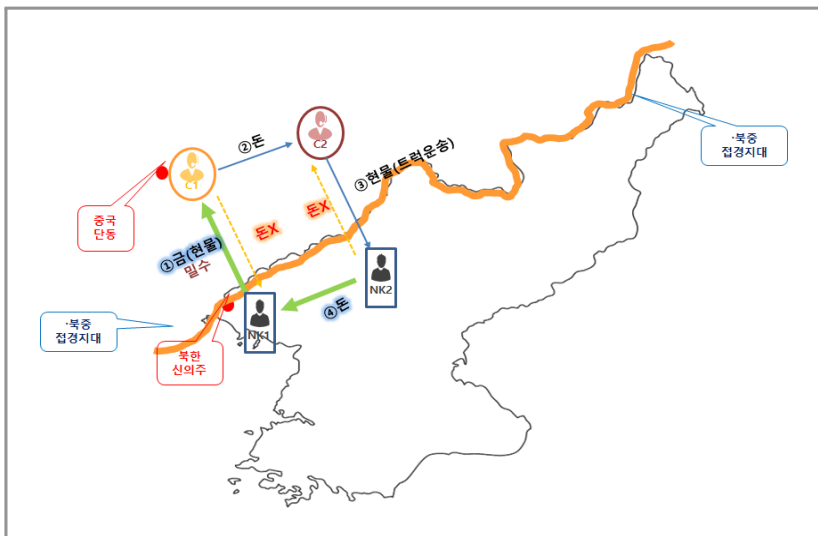
자료: 인터뷰조사에 의해 필자 작성

밀수는 곧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유입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액인 만큼 대금을 인편으로 보내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따라서 금 밀수는 다음과 같이 북·중 간 이관시스템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혜산에는 전국 각지에서 금을 사들여 중국에 판매하려는 금 밀수업자 ‘NKgs’가 ‘NKgs1’, ‘NKgs2’, ‘NKgs3’……·‘NKgsn’와 같이 복수로 존재한다. 한편, 혜산 맞은편 중국장백에는 북한산 금을 사들여 비싸게 되팔려는 중국인 금 밀수업자 ‘Cgb’가 ‘Cgb1’, ‘Cgb2’, ‘Cgb3’……·‘CgbN’와 같이 복수로 존재한다. 문제는 ‘NKgs’와 ‘Cgb’가 서로 알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특히 이들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어서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 이때 이 둘의 거래를 성사시킬 브로커가 등장한다. 혜산에는 ‘NKgbr1’, ‘NKgbr2’, ‘NKgbr3’……·‘NKgbm’가,

장백에는 ‘Cgbr1’, ‘Cgbr2’, ‘Cgbr3’……‘Cgbrn’가 있다. 이들은 대체로 국경경비대 등과 튼튼한 유착관계를 가지며 국경장사를 하는 밀수업자이다. 따라서 북한 측에서 ‘NKgs’는 이들 중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NKgbr’에게 금 판매를 의뢰하면, ‘NKgb’는 평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중국인 브로커 ‘Cgbr’에게 연락을 취한다. 이때 금 운반은 다음과 같다. 우선 ‘NKgs’집에서 ‘NKgbr’집으로 운반하는데 이 과정은 ‘NKgs’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금이 ‘NKgbr’집에 도착하면 ‘NKgbr’는 바로 ‘Cgbr’에게 전화해 금을 가지러 자신의 집에 오라고 한다. 그러면 ‘Cgbr’는 도강해 해산에 와 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 최고의 가격을 부르는 금 구매업자 Cgb에 넘긴다.

〈그림4〉 북·중 간 비공식 송금 시스템



자료: 인터뷰조사에 의해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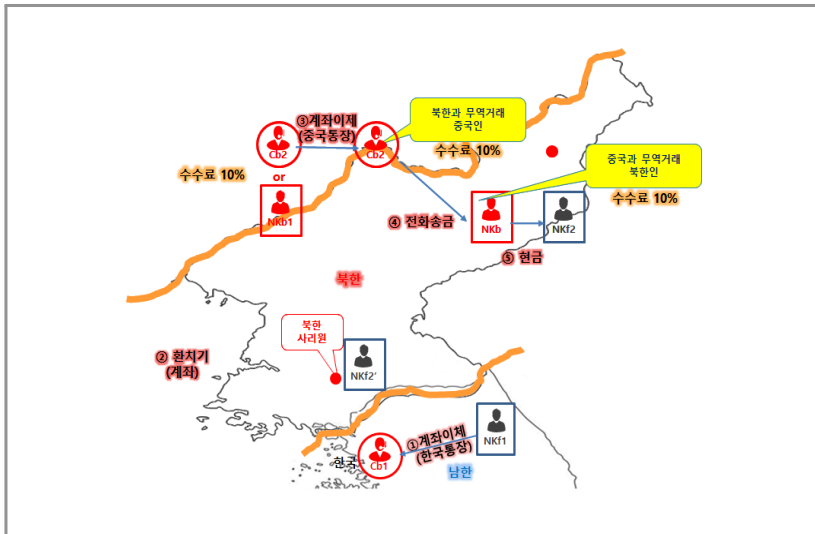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금의 품위(grade)와 질량검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이 필수다. 북한에서는 중국에 금을 넘기기 전 각각의 덩어리에 대해 번호를 매겨 질량과 품위를 적은 검사표를 함께 보내지만 중국에서도 별도 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 금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주체로부터 모은 금이라 양도 품위도 제각기다. 따라서 금이 작든 크든 품위가 높은 낮은 덩어리 하나하나에 대해 품위검사를 진행하며, 중국과 북한 쌍방의 검사가 맞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차후에 합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한다. 문제는 가격이 결정되고 ‘Cgb’가 ‘Cgbr’에게 금값을 지불하면 ‘Cgbr’는 이 대금을 어떻게 북한에 보내야 하는지 문제에 봉착한다. 다른 상품과 달리 금은 단가가 높아 판매금액이 워낙 커서 위험부담이 높다. 이때 장백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인 무역업자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주로 북한에 상품을 수출하는 입장이어서 북한에 아직 받지 못한 돈이 항상 깔려있다. 따라서 중국인 브로커 ‘Cgbr’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업자 Cm1, Cm2, Cm3, Cm4, Cm5, Cm6……Cmn에게 금값을 분산해서 지불하면 Cm1, Cm2, Cm3, Cm4……Cmn은 자신의 북한 무역파트너 NKm1, NKm2, NKm3, NKm4……NKmn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금액만큼 NKgbr에게 돈을 주라고 한다. 그러면 돈을 취합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떼고 NKgsn에게 대금이 취합되어 거래는 끝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도 거래자 간에는 돈을 받지 못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C2와 NK2 등의 관계는 장기간 철저한 장사 및 무역에 기반을 둔 신용관계에 의해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한중북 삼각 이관시스템

북·중 접경지역 간에 형성된 송금체계는 내륙을 연결시켰을 뿐 아니라 점차 한국·미주 등 외국으로 확장되어 외국·중·북 등 3각 송금시스템을 파생시켰다. 즉 제 3국에서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지만 중국을 경유하는 루트이다. 조사결과, 이는 위 <그림5>와 같이 한국(외국)→한국(외국), 한국(외국)→중국, 중국→북한 등 3단계를 경유한다.

첫째, 한국(외국)거주 탈북자 ‘Nkf1’가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 ‘Nkf2’에게 돈을 보내려면 일단 중국을 거치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그림 5> 북·중 민간 무역 간 거래 상품 변화



자료: 인터뷰조사에 의해 필자 작성

보내는 방법은 은행을 통한 적법한 환전 송금절차가 아닌 이른바 ‘환치기’라 불리는 불법외환거래이다. 여기서 NKb1이 선택한 환치기의 거래 루트는 환치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찾아가거나 개인통장을 이용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탈북자 A씨가 선택한 루트는 중국조선족이 밀집한 서울의 ○○환전소 또는 ○○중국여행사다. 이곳을 찾아가 중국계좌를 알려주면 2-3분 만에 송금이 완료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만원이며 1,000만 원 이상이면 없다. 한편, 탈북자 B씨는 개인 간 환치기를 이용해 중국으로 송금했다. 우선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에서 또 다른 한국 △△계좌로 돈을 보낸다. 이때 △△한국 계좌는 중국에 거주하는 브로커 ‘Cb2’가 알려준 한국에 있는 중국인 계좌다. 탈북자 B씨가 △△한국계좌로 송금하면 몇 분도 안되 환치기방식으로 중국의 ‘Cb2’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둘째, 중국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 계좌의 주인 중국인 ‘Cb2’ 브로커는 북한 브로커 ‘NKb1’에게 연락을 하는데 돈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① ‘Cb2’가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송금액 전액을 인출해 ‘NKb1’가 북한에서 오기를 기다렸다가 전달하는 방법, ② Cb2가 돈을 인출해서 밀수 배를 타고 북한의 어느 접경지대로 가서 브로커 NKb1를 만나 전달하는 방법, ③ ‘Cb2’는 돈이 도착하는 즉시 북·중 간 이관 시스템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하고, 북한 브로커 NKb1은 중국 물주가 알려준 북한의 어느 이관 집에 가서 돈을 찾고 이를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 이다. 따라서 ‘Cb2’는 반드시 중국 현지인일 필요가 없다. 북한과 중국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하고 중국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면 북한사람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모두 가능한 북한 화교가 유리했다. 특히 화교의 경우 북한에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매우 유리하다.

셋째, 북한 브로커 NKb1는 'Cb2'에게서 돈을 받으면 북한 가족 NKf2를 만나 수수료 20%를 받고 돈을 건네준다. 이들이 만나는 장소는 주로 국경지대이지만 NKf2가 내륙에 거주한다면 직접 내륙까지 가서 돈을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수수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는데 1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러한 거래가 증가할수록 회령, 온성 등 북·중 접경지대의 개인 숙박업소는 숙식 이외에도 짐을 받아주거나 중국에서 돈을 받는 역할을 하는 등 사금융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었다. 국경지대 '개인숙박업소'는 합법적으로 중국에 나간 친인척의 도움을 받으러 온 주민을 가장 큰 고객으로 삼으며 다음 5가지 항목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 첫째, 숙박 요금을 잘 낸다. 둘째, 일단 짐을 받으면 일주일 정도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포장 등 짐 정리를 하면서 일부 옷을 주인에게 선물한다. 셋째, 중국전화사용 대여요금이다. 넷째, 수화물택배중계료이다. 타지에서 왔다면 본인 집까지 짐을 부쳐야 할 때 열차 간 인맥이 있다면 수화물을 신속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사람 소개를 숙박업소가 한다. 다섯째 돈 심부름이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돈을 보낼 때 대신 받아주고 수수료 10-30% 정도 받는다.

V. 결론 : 해외송금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해외 거주 탈북자는 대부분 본국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이관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소득 대부분을 송금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이관시스템은 구조적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즉 이슬람의 ‘하왈라(hawala)’나 인도의 ‘훈다(hundi)’ 등 비공식 중개업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하는 ‘비공식 자금이체시스템(Informal Fund Transfer System)’과 유사했다.¹⁸⁾ 다만 반드시 중국을 경유해야 하며, 수수료가 20-30%로 현저히 고가지만 참여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¹⁹⁾ 그 이유는 북한 주민이 국가은행을 신뢰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에서도 비롯되었다.

첫째, 북한의 이관시스템은 북·중 접경지대의 비공식 이관시스템이 중심이 되어 북한의 내륙 또는 제 3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접경지역에 한정되었지만 북·중 무역의 증대로 북한이 중국과 정보·통신·교통·유통·결제 망 등 사회간접자본을 서로 공유·확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북·중 간 연계된 이관시스템은 24시간 내에 돈이 수취인에 도달하며 전화로 즉시 확인가능하다. 즉 이관시스템은 중국과 강화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신뢰가 구축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화 되었다.

둘째, 중국과의 인프라 공유는 양 지역 간 공통된 경제문화를 싹트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결제시스템을 생성시켰다. 송금을 중개하는

18) 김중호, “국가간 비공식 송금 제도로서의 하왈라(hawala)방식 자금이체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慶熙法學』, 제45권 제3호(2010) 참조.

19) 최근 송금 수수료가 20% 전후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자의 증가에 기인한다.

브로커가 설령 한족(漢族)이라고 해도 북한화교나 중국조선족 등이 중간에 있어 이용자는 언어나 문화적 장벽이 없이 송금의 편리성을 향유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익명성이 보장되었다. 즉 전화 및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비공식 송금제도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으나 북한의 비공식 송금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필수조건은 아니다. 북한의 이관시스템은 중국과 경제적, 문화적, 도덕적 기반 하에 만들어진 비공식 신뢰 금융네트워크다.

이러한 이관시스템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해외 송금은 북한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외화 공급량을 증대시켰다. 해외거주 탈북자는 규모도 크며 불법 체류자 신분이지만 대부분 노동을 하고 숙식을 직장에서 해결했다. 이 경우 급여는 그대로 축적되어 가족에게 송금되었으며 이들이 1년에 송금하는 액수는 약 3억 7천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는 북한의 대중 연간 무역총액을 60억이라고 했을 때 약 1/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대중수출의 1/3에 해당된다. 북한의 1년 재정이 2010년 192억 달러라고 할 때 약 1/48에 해당하는 규모다.²⁰⁾

둘째, 유효수요(有效需要)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 즉 북한의 가족은 현지 통화가 아닌 외화로 송금을 받았는데 북한에서 외화의 가치는 매우 높다. 노동자 1달 평균 임금은 북한 돈 2-3천원이며 이는 쌀 0.5kg의 구매력에 불과하다. 2017년 현재 1달러에 북한 돈 8300원에 교환되어 국내 1달 임금이 0.2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1달러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특히 4인 가정의 1달 생계비가 40-50달러

20) 북한의 재정은 『対外投資合作国別地区)指南: 朝鮮』, 中国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2017), p.19

라고 상정할 때 1달에 200달러만 송금 받아도 한 가계가 4~5개월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다.²¹⁾

셋째, 상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여 거래를 증대시킨다. 무엇보다 송금 수취인은 대부분 서민층이다. 이들은 여유자금이 별로 없다. 송금을 받는 즉시 생활을 위해 모두 장마당에서 소비했다. 바꿔 말하면 부유층과 같이 장롱 속에 돈을 쌓아둘 여유가 없다. 사실 경제에서 국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개인과 기업이 돈을 움켜쥐고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과 투자,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제가 함정(trap)에 빠질 수 있다. 모두 시장에 들고 나와 소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송금시스템은 비록 제도권 밖에서 움직이지만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보면金正은 시대 동맥과도 같다. 돈이 잘 돌면 그 만큼 화폐의 유통속도(V)를 증대시켜 경제 내 여러 주체들 간에 더 많은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외송금의 국내 유입은 북한의 민생경제와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북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⁸

21) 평양의 경우 70달러이다.

[참고문헌]

- 김종호, “국가 간 비공식 송금 제도로서의 하왈라(hawala)방식 자금이체
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慶熙法學』, 제45권 제3호, 2010.
-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과의 비즈니스: 현대화와 신소비문화”, 극동문제
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2017.
- 류경원, “현장취재: 연고아동, 그 삶의 현장과 과제”, 『임진강』 No.5호,
2009.
- 리정순, “접순에 움트는 새싹”, 『임진강』 No.5, 2009.
- _____, “실화: 중국마을 부녀위원으로 선거 된 조선녀성”, 『임진강』
No.5호, 2009.
- 박영자, “북한의 사금융시장”, 한국수출입은행 편저 『북한의 금융』, 서울
: 도서출판 오름, 2016.
- 양문수,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한국수출입은행 편저 『북한의 금융』,
서우리 도서출판 오름, 2016.
- _____, “국가간 비공식 송금 제도로서의 하왈라(hawala)방식 자금이체
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慶熙法學』, 제45권 제3호, 2010.
- _____,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08.
- 양운철·장형수,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성장률 추정치 평가”, 『세종정책
브리핑』, 2017.
- 임을출, “북한의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합의 및 과제”, 『통일문제
연구』, 제27권 제1호, 2015.
- 정은이,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 _____, “북한에서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함경북도 무산지역
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2013.

- _____, “북한의 물류와 시장 : 운송업자·주요소 등장…북한에도 ‘택배’가 가능해졌다,” 『통일시대』, 민주평통 212호, 2016.
- 정은이·박종철, “중국의 대북한 무역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6권 2호, 2014.
- 장형수,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 1991-2012년,”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2013.
- _____,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에 대한 분석』, 세종연구소 제 16차 정세 토론회 자료집, 2017.
- 최지영·정승호, “북한시장의 물가와 인플레이션,” 한국수출입은행 편저 『북한의 금융』, 도서출판 오름, 2016.
- 홍민·차문석·정은이·김혁, 『북한 전국 시장 정보 ;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